

# 보건산업의 성장기여도 및 성장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Output Growth in the Health Industry

鄭永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건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보건 및 복지측면에서의 기여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성장유망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좁은 시장을 감안할 때 내수 확대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개방화에 따른 자유무역의 진전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의 보건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여야 하며, 또한 높은 수입의존형 산업에서 탈피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무역경쟁력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를 위한 유망 품목을 개발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건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엔 미친 기여도 및 성장요인을 분석함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 1. 서 언

보건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동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건강수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개발된 페니실린은 질병치료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간염백신의 개발로 간염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함을 보아왔다. 또한, 보건산업은 국민의 복지수준

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에 중대한 기반 제공이 가능하다. 일례로 일본(1995년)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중 1위가 식료품으로 전체 중간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의약품으로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부문이 복지서비스부문과 밀접한 '연계구조'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보건 및 복지측면에서의 기여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보건산업은 고부가가치<sup>2)</sup>

- 1) 정영호·이건직, 『보건산업의 산업구조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2) 보건산업의 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1995년), 의약품은 1.049, 의료기기 1.077, 식품 1.030, 화장품 1.037임. 전산업 평균은 1.0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

의 성장유망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5년 까지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건의료관련 기술이 예측되고 있는 등 국가 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보건 및 복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보건 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sup>4)</sup>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건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 및 성장요인을 분석함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간한 1985-90-95년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상의 354개 기본분류를 41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sup>5)</sup> 보건산업의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전체 산업과 제조업의 성장에 보건산업이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내 최종수요의 증대효과, 수출증대효과, 최종재 수입 대체효과, 중간재 수입대체효과, 기술변화 효과 등 수요측면에서의 성장요인 분석을 통하여 동 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향후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고

자 한다.

## 2. 성장기여도 분석

본 절에서는 산업별 성장기여도의 변화를 보기로 한다. 산업별 성장기여도는 산업전체의 산출 증가액에 접하는 각 산업의 산출 증가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text{산업별 성장기여도} = \left( \frac{\Delta X_i}{\sum \Delta X_i} \right) \times 100$$

여기서  $\Delta X_i$ : 산업 i의 총산출 변화를 의미함.

<표 1>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우리나라 총산출액의 산업별 구성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1985~95년간에 대해 산업그룹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건설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각각 약 9.5%와 9.4%로 가장 높은 부문들로 나타났다. 그 뒤를 수송장비가 7.2%, 화학이 6.0%, 도소매가 5.9%, 제1차금속이 5.5%, 금융 및 보험이 4.7%, 그리고 일반기계가 4.5% 정도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산업이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식품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제2회 과학기술예측(2000~2025)』, 1999. 참조

4)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새 천년 복지비전 2010 -생산적 복지의 구현-』, 199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경제의 중장기 비전 -복지부문-」, 공청회 자료 99-10, 1999. 11. 25. 등을 참조

5) 산업분류를 재조정함에 있어 염두에 둔 것은 보건산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부문들을 분리하여 분류하였음. ICT 제조업을 구성하는 부문은 전자기기 부품, 영상 음향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문임. 본고에서는 ICT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건산업의 상대적인 위상 및 성장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표 1. 산업별 성장기여도의 변화(1985~95년)

(단위: %)

번호	산업	1985~90	1990~95	1985~95
1	농림수산	0.480	0.863	0.699
2	광산	0.346	0.186	0.255
3	식품	3.968	1.959	2.821
4	섬유, 가죽	4.811	0.545	2.377
5	목재 및 종이	1.832	1.278	1.516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92	0.942	1.007
7	석유, 석탄	1.588	2.696	2.220
8	화학	5.572	6.335	6.007
9	의약품	0.921	0.642	0.762
10	화장품	0.418	0.461	0.443
11	비금속	1.943	2.237	2.111
12	제1차금속	5.212	5.660	5.468
13	금속	1.240	2.984	2.236
14	일반기계	4.292	4.738	4.547
15	전기기계 및 장치	1.455	1.944	1.734
16	전자기기 부분품	2.307	6.129	4.488
17	영상, 음향 통신기기	2.138	2.235	2.193
18	컴퓨터 및 사무기기	0.756	1.773	1.336
19	가정용 전기기기	0.717	0.831	0.782
20	의료기기	0.047	0.079	0.065
21	정밀기기	0.430	0.698	0.583
22	수송장비	6.211	7.979	7.220
23	가구 및 기타	1.482	0.506	0.925
24	전력, 가스 및 수도	1.735	2.185	1.992
25	건설	13.539	6.540	9.544
26	도소매	6.422	5.426	5.853
27	음식점 및 숙박	0.595	0.594	0.594
28	운수 및 보관	3.160	3.094	3.122
29	통신 및 방송	1.176	2.108	1.708
30	금융 및 보험	4.310	5.047	4.731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383	10.832	9.351
32	공공행정 및 국방	4.253	1.728	2.812
33	교육기관	1.930	1.150	1.485
34	연구기관	0.854	1.149	1.022
35	의료(국공립)	0.021	0.157	0.099
36	의료(비영리)	0.797	0.450	0.599
37	의료(산업)	0.120	0.952	0.595
38	사회복지	0.046	0.169	0.116
39	위생서비스	0.144	0.435	0.310
4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262	1.585	1.446
41	기타	2.995	2.699	2.826

자료: 한국은행의 『1985-1990-1995년 연속불변산업연관표』 2000.을 활용하여 계산

이 약 2.8%, 의약품은 0.8%, 화장품이 0.4%, 그리고 의료기기가 약 0.1% 정도의 기여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985~95년 기간 중에는 전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식품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약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보건산업의 성장기여도를 기간별로 보면, 식품은 약 4.0%(1985~90년) → 2.0%(1990~95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0.9%(1985~90년) → 0.6%(1990~95년)로 식품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화장품은 0.4%(1985~90년) → 0.5%(1990~95년)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0.05%(1985~90년) → 0.08%(1990~95년)로 전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건산업 중 가장 낮지만 기여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3. 보건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 1) 총괄(1985~95년)

1985~95년의 10년간에 대해 성장에 대한 각 요인들의 공헌도를 보면(표 2 참조), 산업전체의 경우 국내 최종수요의 증대요인이 약 69.3%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수출효과가 약 28.6%로 나타났다. 수입대체와 관련하여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1.1%,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0.3%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기술변화효과는 약 3.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최종수요 및 수출의 증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수입대체(중간재와 최종재)나 기술변화 요인은 커다란 성장요인으로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성장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식품산업 산출액(생산액)의 증가 중 국내 최종수요의 증대가 기여한 정도는 82.4%로 가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뒤를 수출효과가 29.3% 수준의 공헌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16.5%,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4.9%로 부(-)의 효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기술변화효과는 9.8%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은 내수 위주 산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수입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대체가 큰 폭의 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최종수요의 효과가 88.0%로 가장 높으며, 기술변화효과가 13.2%로 두 번째의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출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하며, 수입대체효과에서는 중간재(-2.9%), 최종재(-4.2%) 모두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산업 역시 식품산업과 같이 높은 내수 의존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의 부진으로 동 요인들의 공헌도가 낮은 것으

6) 참고로 보건산업의 서비스부문에 해당하는 의료부문의 경우에는 1985~95년 사이에 국공립이 0.1%, 비영리가 0.6%, 산업이 0.6%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산업별 생산액 변화 요인 기여도(1985~95년)

(단위: %)

	산 업	총산출증가	최종수요	수출효과	중간재수입	최종재수입	기술변화
	전산업	100.0	69.3	28.6	-1.1	0.3	3.0
1	농림수산	100.0	598.1	122.9	-95.0	-98.8	-427.2
2	광산	100.0	167.2	62.9	-6.6	-88.0	-35.5
3	식품	100.0	82.4	29.3	-16.5	-4.9	9.8
4	섬유, 가죽	100.0	78.0	84.0	-12.6	-25.5	-23.9
5	목재 및 종이	100.0	85.6	33.0	-1.9	-6.0	-10.7
6	인쇄, 출판 및 목재	100.0	75.3	12.8	-1.9	-0.5	14.2
7	석유, 석탄	100.0	72.8	41.0	-4.2	-14.0	4.5
8	화학	100.0	35.1	50.1	-1.2	7.3	8.6
9	의약품	100.0	88.0	5.9	-2.9	-4.2	13.2
10	화장품	100.0	85.3	18.7	-8.2	0.1	4.1
11	비금속	100.0	64.9	16.6	-0.1	3.8	14.8
12	제1차금속	100.0	55.5	44.6	1.2	1.7	-3.1
13	금속	100.0	57.9	14.7	1.5	6.4	19.5
14	일반기계	100.0	51.1	31.7	2.7	4.6	9.9
15	전기기계 및 장치	100.0	47.1	37.1	3.3	15.0	-2.5
16	전자기기 부분품	100.0	7.3	89.3	0.9	4.8	-2.3
17	영상, 음향 통신기기	100.0	41.3	46.3	4.2	6.2	2.0
18	컴퓨터 및 사무기기	100.0	25.3	51.2	14.1	6.8	2.6
19	가정용 전기기기	100.0	65.9	29.9	-2.3	0.6	5.8
20	의료기기	100.0	48.6	42.2	4.6	-10.4	15.0
21	정밀기기	100.0	38.5	47.6	0.7	12.3	1.0
22	수송장비	100.0	56.5	30.1	1.8	4.5	7.2
23	가구 및 기타	100.0	74.6	22.0	-7.6	1.0	9.9
24	전력, 가스 및 수도	100.0	69.4	21.5	-0.8	0.6	9.3
25	건설	100.0	101.6	1.0	-0.1	-0.2	-2.4
26	도소매	100.0	95.7	21.2	0.0	1.1	-17.9
27	음식점 및 숙박	100.0	76.4	64.5	-22.7	-7.2	-11.0
28	운수 및 보관	100.0	53.3	51.8	-3.6	1.2	-2.7
29	통신 및 방송	100.0	72.9	12.7	-0.5	-1.3	16.2
30	금융 및 보험	100.0	66.4	13.3	-0.3	1.1	19.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0.0	71.7	10.8	-0.6	-2.9	21.0
32	공공행정 및 국방	100.0	100.1	-0.2	0.1	0.0	0.0
33	교육기관	100.0	104.6	1.3	-6.8	0.2	0.7
34	연구기관	100.0	43.9	32.1	1.9	5.8	16.3
35	의료(국공립)	100.0	97.7	1.6	-0.3	-0.1	1.2
36	의료(비영리)	100.0	99.7	0.2	-0.1	0.0	0.1
37	의료(산업)	100.0	99.2	1.0	-0.2	0.0	0.2
38	사회복지	100.0	99.3	0.0	0.6	0.0	0.0
39	위생서비스	100.0	78.6	7.5	-0.4	0.0	14.3
4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0.0	93.4	8.4	-2.6	0.1	0.7
41	기타	100.0	54.1	38.0	-0.4	0.0	8.2

로 분석되었다.

화장품은 국내 최종수요가 85.3%의 정(+)<sup>7)</sup>의 효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은 18.7%인 수출효과이었다.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8.2%로 부(-)의 효과로 나타난 반면,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0.1%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최종재 수입대체효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변화효과는 4.1%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화장품 산업 역시 높은 내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과 의약품산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의 경우는 다른 보건산업을 구성하는 부문들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최종수요의 효과가 48.6%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부문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공헌도는 42.2%로 보건산업 중 가장 높은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간재 수입대체효과 역시 4.6%의 정(+)<sup>7)</sup>의 효과로 동 산업의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종재 수입대체는 -10.4%의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고가 의료장비의 수입 확대를 간접적으로 엿 볼 수 있다.

한편, 전자기기부분품, 영상·음향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ICT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산업의 높은 수출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중간재 수입대체효과와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모

두 정(+)<sup>7)</sup>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수입대체에 있어서도 보건산업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 2) 기간별 분석(1985~90년 및 1990~95년)

1985~95년 사이의 분석기간을 1985~90년과 1990~95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산업별 생산액을 요인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두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성장에는 국내 최종수요의 증대(71.3%, 69.9%)와 수출효과(21.9%, 35.4%)가 가장 큰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반면,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0.6%(1985~90년) → -2.8%(1990~95년),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1.6%(1985~90년) → -3.0%(1990~95년)로 나타나 부(-)의 효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초의 WTO 출범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교역 질서의 자유화·개방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병행하여 우리나라도 수입자유화와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수입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1985~90년 사이에는 5.8% 정도의 정(+)<sup>7)</sup>의 효과를 보인 기술변화 효과는 1990~95년 기간에는 0.5%로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중간투입 절약적 기술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산업의 세부업종별 성장요인의 기간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식품산업의 경우

7) ICT 제조업들의 수출효과, 중간재 수입대체효과,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각각 전자기기부분품이 89.3%, 0.9%, 4.8%이며, 영상·음향 통신기기는 46.3%, 4.2%, 6.2%이며,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51.2%, 14.1%, 6.8%임.

1985~90년 사이에 최종수요와 수출의 공헌도가 각각 71.5%(1985~90년) → 118.5%(1990~95년), 19.7% → 51.3%로 대폭 확대되었다. 반면, 기술변화 효과는 1985~90년 기간 동안에는 22.1%로 수출효과를 상회하는 두 번째로 높은 성장요인이었으나, 1990~95년 기간에는 -29.5%로 부(-)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7.7%(1985~90년) → -38.4%(1990~95년)로 1990년대 전반에 들어와 부(-)의 성장요인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는 -5.6% → -2.0%로 계속하여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품산업의 경우에는 공헌도가 가장 높은 요인들인 최종수요와 기술변화 효과 모두 기여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요 효과는 84.6%(1985~90년) → 95.9%(1990~95년)를, 그리고 기술변화 효과는 11.4% → 13.7%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출효과는 공헌도가 낮아졌으며 (7.2% → 4.9%), 수입대체의 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와 부(-)의 효과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간재 수입대체 효과가 -1.0%(1985~90년) → -6.4%(1990년~95년)로, 그리고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2.2%(1985~90년) → -8.0%(1990년~95년)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산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내수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도 1990년대 들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동 산업의 성장에 가장 높은 공헌도를 보이고 있는 최종수요의 효과는 낮아졌지만(100.8% → 72.1%), 다른 요인들의 공헌도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보건산업의 세부 업종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의 공헌도는 12.7% → 21.7%로 확대되었으며,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는 -13.8% → -1.9%로, 그리고 최종재 수입대체효과는 -0.8% → 1.1%로 부(-)의 효과에서 정(+)의 효과로 돌아섰다. 한편, 기술변화 효과는 1.1% → 6.9%로 공헌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간투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기술변화가 일어나 생산에 있어서 우회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의료기기는 1985~90년 기간에는 중간재 수입대체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공헌도를 보인 요인은 수출효과로 49.5%이었으며, 최종수요의 효과가 29.3%, 최종재 수입효과가 13.4%, 그리고 기술변화 효과가 11.5%로 나타났다. 한편, 1990~95년 기간 동안에는

8) 사회적 분업이나 협업이 고도로 발달된 경제사회에서는 최종생산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상위 많은 생산단계를 통하여 상당한 생산기간을 요하는 것이 보통임. 이와 같이 최초의 본원적 생산수단의 투하로부터 최종생산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생산과정을 우회생산이라 함. 일반적으로 공업발전이 심화될수록 생산의 우회도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원료, 설비,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는 기술이 체화된 가공원료, 고도설비, 숙련노동력 등과 같은 양질의 고급 생산요소로 대체됨.

표 3. 산업별 생산액 변화 요인 기여도의 기간별(1985~90년, 1990~95년) 분석

(단위: %)

	산업	총산출 증가	최종수요		수출효과		중간재수입		최종재수입		기술변화	
			1985 ~90	1990 ~95	1985 ~90	1990 ~95	1985 ~90	1990 ~95	1985 ~90	1990 ~95	1985 ~90	1990 ~95
1	전산업	100.0	71.3	69.9	21.9	35.4	-0.6	-2.8	1.6	-3.0	5.8	0.5
2	농림수산	100.0	398.2	797.6	130.8	699.8	-6.2	-188.1	-118.2	-72.2	-304.6	-537.2
3	광산	100.0	113.7	205.7	44.5	91.4	2.1	0.1	-26.6	-159.1	-33.7	-38.1
4	식품	100.0	71.5	118.5	19.7	51.3	-7.7	-38.4	-5.6	-2.0	22.1	-29.5
5	섬유, 가죽	100.0	30.8	78.0	72.4	84.0	-3.0	-12.6	-2.4	-25.5	2.3	-23.9
6	목재 및 종이	100.0	75.7	135.1	29.6	38.4	-8.0	-29.3	-4.0	-16.7	6.7	-27.5
7	인쇄, 출판 및 복제	100.0	74.3	79.4	10.8	14.7	-2.3	-1.4	1.8	-4.4	15.5	11.8
8	석유, 석탄	100.0	83.9	62.5	39.2	40.7	-7.7	0.1	-14.9	-13.3	-0.5	10.1
9	화학	100.0	33.9	38.5	41.2	60.7	-1.5	0.4	4.7	8.8	21.7	-8.5
10	의약품	100.0	84.6	95.9	7.2	4.9	-1.0	-6.4	-2.2	-8.0	11.4	13.7
11	화장품	100.0	100.8	72.1	12.7	21.7	-13.8	-1.9	-0.8	1.1	1.1	6.9
12	비금속	100.0	72.4	58.0	16.2	25.0	-2.7	-0.1	4.1	2.2	10.0	14.9
13	제1차금속	100.0	62.1	50.6	32.5	54.9	2.7	-1.5	5.7	-6.2	-3.0	2.2
14	금속	100.0	89.0	44.0	-12.7	22.7	2.1	0.2	10.1	2.3	11.5	30.9
15	일반기계	100.0	54.6	50.8	22.5	39.1	2.1	2.6	8.7	-2.0	12.2	9.5
16	전기기계 및 장치	100.0	54.2	44.5	30.5	44.4	4.0	0.5	18.9	6.8	-7.6	3.8
17	전자기기 부분품	100.0	13.6	7.3	74.9	95.1	1.8	0.2	8.4	1.5	1.4	-4.1
18	영상, 음향 통신기기	100.0	43.1	44.0	46.2	44.4	8.9	-5.6	2.3	7.5	-0.6	9.6
19	컴퓨터 및 사무기기	100.0	13.8	35.7	68.7	46.6	5.5	10.8	9.9	1.6	2.1	5.2
20	가정용 전기기기	100.0	78.4	54.6	25.7	32.1	-6.2	2.8	0.4	0.5	1.6	10.1
21	의료기기	100.0	29.3	66.2	49.5	36.6	-3.7	19.0	13.4	-24.1	11.5	2.2
22	정밀기기	100.0	30.9	46.8	43.0	58.7	-1.9	5.5	22.2	-5.4	5.9	-5.6
23	수송장비	100.0	71.8	51.5	7.8	45.6	4.2	-2.1	5.9	0.7	10.4	4.3
24	가구 및 기타	100.0	61.0	132.9	25.4	18.2	-2.9	-27.0	3.4	-9.1	13.1	-14.9
25	전력, 가스 및 수도	100.0	69.1	70.9	19.8	22.6	-0.8	-1.4	2.0	-2.0	10.0	10.0
26	건설	100.0	98.9	107.3	0.5	2.1	0.0	-0.2	0.0	-0.6	0.6	-8.6
27	도소매	100.0	72.5	122.3	23.4	19.0	0.1	-1.0	3.2	-2.5	0.8	-37.7
28	음식점 및 숙박	100.0	56.3	94.5	63.7	64.6	-30.7	-14.1	19.1	-40.7	-8.3	-4.3
29	운수 및 보관	100.0	67.5	43.5	30.8	70.0	-2.2	-5.9	4.3	-5.0	-0.5	-2.6
30	통신 및 방송	100.0	70.8	73.1	16.5	10.6	-0.4	-0.8	-0.1	-2.4	13.3	19.4
31	금융 및 보험	100.0	55.3	79.0	12.0	16.9	-0.1	-1.2	3.7	-3.0	29.1	8.3
3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0.0	81.5	63.7	9.6	11.6	-0.2	-1.2	-1.7	-3.4	10.8	29.3
33	공공행정 및 국방	100.0	99.5	101.2	0.5	-1.4	0.1	0.2	0.0	0.0	0.0	0.0
34	교육기관	100.0	104.2	105.2	0.8	2.0	-5.3	-9.4	0.2	-0.1	0.1	2.3
35	연구기관	100.0	52.6	39.8	24.3	39.3	1.4	0.6	3.6	2.2	18.1	18.0
36	의료(국공립)	100.0	65.6	102.6	8.8	1.4	-1.2	-0.2	-0.5	-0.4	27.3	-3.5
37	의료(비영리)	100.0	99.4	100.4	0.1	0.4	0.0	-0.3	0.0	0.1	0.5	-0.6
38	의료(산업)	100.0	92.2	100.0	4.8	0.7	-3.1	0.1	0.1	-0.1	6.0	-0.7
39	사회복지	100.0	97.6	100.1	0.2	0.0	2.2	-0.1	0.0	0.0	0.0	0.0
40	위생서비스	100.0	98.2	70.1	7.7	6.3	-0.4	-0.5	1.2	-0.7	-6.7	24.8
4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0.0	98.3	90.3	2.8	12.2	-1.1	-3.9	1.1	-1.1	-1.1	2.4
42	기타	100.0	52.6	61.3	25.4	50.2	-0.8	-1.1	4.1	-6.8	18.7	-3.7



최종 수요요인의 기여도가 66.2%로 제일 높았으며, 수출효과는 36.6%로 공헌도가 다소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술변화의 효과는 기여도가 2.2%로 감소하였다. 한편, 수입대체 효과는 1985~90년 기간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재 수입대체 효과는 부(-)의 효과에서 정(+)의 효과(19.0%)로 변화하였으나,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는 반대로 -24.1%의 부(-)의 효과로 작용하였다.

ICT 제조업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기기 부분품은 국내 최종수요의 기여도가 축소(13.6% → 7.3%)된 반면, 수출효과는 확대(74.9% → 95.1%)되었다. 영상 음향 통신기기는 최종재 수입대체와 기술변화의 공헌도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띄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최종수요와 중간재 수입대체의 기여도가 높아진 반면 수출효과와 최종재 수입대체의 공헌도는 축소되었

음을 알 수 있다.

## 5. 결 언

1985~95년 기간 사이에 보건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산업은 의료기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내수에 의존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의 부진이 동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ICT 제조업의 경우는 동 산업의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공헌도가 가장 높으며, 수입대체 역시 플러스 성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표 4 참조).

소득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 등으로 국내의 의료수요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내수를 기반으

표 4.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의 성장기여도(1985~95년)

(단위: %)

구 분	수출증대효과			최종재 수입대체효과			중간재 수입대체효과		
	1985~90	1990~95	1985~95	1985~90	1990~95	1985~95	1985~90	1990~95	1985~95
식품	19.7	51.3	29.3	-5.6	-2.0	-4.9	-7.7	-38.4	-16.5
의약품	7.2	4.9	5.9	-2.2	-8.0	-4.2	-1.0	-6.4	-2.9
의료기기	49.5	36.6	42.2	13.4	-24.1	-10.4	-3.7	19.0	4.6
화장품	12.7	21.7	18.7	-0.8	1.1	0.1	-13.8	-1.9	-8.2
전자기기 부분품	74.9	95.1	89.3	8.4	1.5	4.8	1.8	0.2	0.9
영상 음향 통신기기	46.2	44.4	46.3	2.3	7.5	6.2	8.9	-5.6	4.2
컴퓨터 및 사무기기	68.7	46.6	51.2	9.9	1.6	6.8	5.5	10.8	14.1

로 꺾을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좁은 시장을 감안할 때 내수 확대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개방화에 따른 자유무역의 진전으로 보호 무역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의 보건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여야 하며, 또한 높은 수입의존형 산업에서 탈피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무역경쟁력 정도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를 위한 유망 품목을 개발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기술력 등 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보건산업의 전 분야에 이르는 무역수지 개선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